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어제와 오늘

具 丙 林

(本 協議會 專門委員)

1

오는 4월 2일이면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發足된 지 滿 6년이 된다. 嬰兒의 시절과 幼兒期를 거쳐 入學 適齡에 이르는 사람의 成長 過程에 비긴다면 이제 協議會도 草創期 또는 初期段階이라는 이유로 어리광을 부리고 있기에는 걸맞지 않는 때가 되었다.

더우기 激動하는 政治·社會的 變化와 大學社會의 많은 주장과 갈등이 過渡期的 混線을 초래하고 있는 오늘의 現實을 감안할 때, 참다운 大學의 모습을 찾아가야 하는 많은 課題와 負擔 앞에서 자못 緊張感마저 느끼게 한다. 大學社會와 더불어 榮辱을 같이 해야 하는 이 協議會가 우리나라 大學들이 當面하고 있는 오늘의 試鍊과 아픔을 克服하고, 새 時代의 바람직한 大學像을 定立해 가는 歷史的 變革期에 牽引車로서의 役割을 해야 된다는 當爲性과 責務感 앞에서 이제 協議會는 本格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遂行해야 할 時點에 왔다고 본다.

發足 初期부터 本 協議會의 實務에 參與해 온 筆者에게 이 기관의 지난 날을 回顧하고 오늘의 實相을 略述해 보라는 請託이 왔기에 設立 背景을 비롯하여 그 동안의 經過 및 現況을 制限된 紙面에 간략히 紹介하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一部 私學에 대한 不信과 學事運

營의 不實을 이유로 大學에 대한 政府의 干與나 規制가 갈수록 深化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6년 전 先進國에서나 定着되어 온 大學間 協議體가 發足한 것은 조금은 生硬한 느낌마저 없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回顧해 보면 창설 당시에 亂일찌기 大學間의 協同이나 團體 活動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大學社會에서는 大學의 自律性 伸張과 관련하여 크게 환영하는 주장들이 있었던 반면, 이 기관의 性格에 대한 理解 不足에서 오는 ‘屋上屋’이라든가 ‘政府의 侍女 機關’이 될 것이라는 速斷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時代的 狀況이나 大學社會의 實情 및 이러한 기구의 構想 背景을 比較的 尙상히 把握하고 있는 筆者로서는 本 協議會 發足の 理想的 動機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싶다.

첫째는 中間的 調整 기관이 없는 각 大學과 政府間의 直接 行政에서 오는 갖가지 불편을 제거하고, 특히 共通의 事案에 관한 協議機構의 필요성이 政府側에서 提案되었으며, 둘째는 大學社會에서 끊임없이 提起되어 온 大學社會의 自治와 自律에 관한 오랫동안의 希求가 反映된 것이다. 셋째로는 제5공화국 초기에 標榜한 ‘教育革新과 民主主義의 土着化’라는 政治的 理念이 구체적으로 發現된 것이며, 끝으로 大學教育의 肥大化나 自律 力量의 伸張 그리고 教育 프로그램의 專門性 등으로 인해 종래의 政府 감독

이나 지도에 限界性을 實感한 데서 오는 必然的 歸結로 종합된다.

당시 全國적으로 100 여 개가 넘는 4년제 大學들이 있었으나 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競爭이나 對立으로 상호간의 協同보다는 斷絶과 外面 속에서 文教部의 保護나 指示에만 지나치게 依存해 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固着되어 버린 오랜 因襲이나 霧囂氣의 미성숙 등 劣惡한 조건 속에서 出帆한 것이지만 先進國型의 大學間 協議機構가 발족할 수 있었던 것은 꼭 다행한 일로 回想되며 韓國의 大學發展史에 하나의 里程碑로 기록될 만한 일로 평가하고 싶다.

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先進 外國에서는 大學間의 協議體나 大學을 위한 研究 및 奉仕機關이 다양한 형태로 開發되어 근 100년에 가까운 歷史 속에서 성장하여 왔다.

그 機能面에서도 同質 大學間의 協力機關(association), 研究 및 諮問機關(institute), 大學評價機關(accrediting body), 大學을 위한 便益과 奉仕機關(council) 및 大學財政支援機關(committee 또는 commission)으로 분화되어 大學教育을 위한 多元的 支援體制나 相互協同體制가 구축되어 왔다.

外國에서 유독 大學間의 協議體나 協力體制가 일찍부터 개발되어 온 이유는 最高學部인 大學의 性格이나 그 本質的 屬性으로 비추어 볼 때 너무나 自明하다. 大學은 본래 外部의 규제나 통제를 받기보다는 自律과 自治로 운영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支援 助成해 주어야 하는 기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위에 大學의 本來的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창조적인 學問 研究와 學生의 教育은 지나친 統制나 制約 속에서는 그 實效를 거둘 수 없는 專門性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視點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뒤늦게나마 大學의 自律性이나 그 自己統制的 힘력 체제가 마련된 것은 官主導的인 大學 行政에 대한 反省이며 大學教育의 本質性 回復을 위한 시도 일 뿐 아니라 民主化 社會의 橫的 相互統制體制

(collateral control system)에로의 移行을 위한 새로운 徵兆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 機關의 발족과 함께 選任된 任·職員들은 대학간의 相互協同이나 自治에 익숙하지 못한 社會 環境이나 大學 風土를 意識하면서 막중한 責任感과 함께 조심스러운 接近을 통해 協議會의 位相과 그 運營 方向 등을 구상하였다. 우선 先進國의 事例 등을 참고하면서 會員大學들의 希求나 願望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年次的으로 擴充 定着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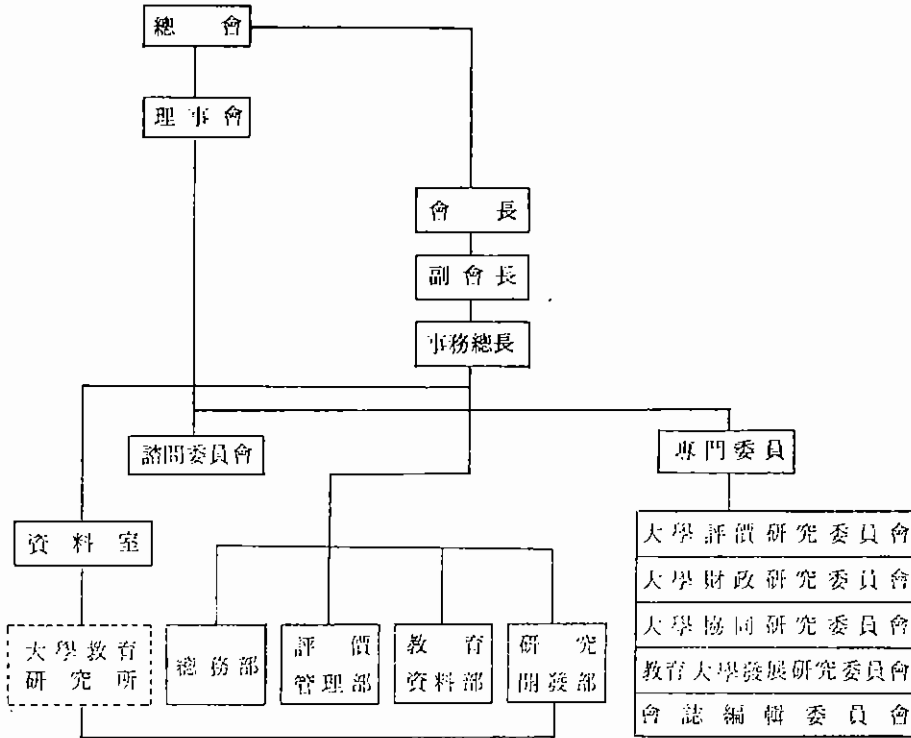
처음 7명으로 출발한 事務處는 事業의 擴充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追加될 때마다 매년 增員되어 현재는 30명 정도의 常勤職員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억여 원에 불과하던 初年度 豫算도 매년 大學으로부터의 會費와 政府 支援이 增額되어 '87년도 현재 5억 원의 會費와 4억 원의 國庫 支援 등 도합 9억 원의 歲入을 가지고 25%의 人件費, 25%의 管理運營費 및 50% 수준의 事業費에 충당하고 있다.

本 協議會의 法的 地位를 보면 처음 任意團體로 출발한 후 1982년 10월 8일에는 政府로부터 社團法人으로 設立 認可를 받았다. 이어서 1984년 4월 10일에는 議員立法이라는 형태로 國會에 제안된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 이 法律 제3727호로 제정 공포되어 特別法에 의한 特殊 法人으로서의 法人格을 갖추으로써 政府와 大學間의 中間調整 기관이며 大學 相互間의 協同과 政策 研究 및 評價를 위한 센터로서의 地位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同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協議會의 주요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大學教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研究 開發
 - 大學 學生選拔制度에 관한 研究 開發
 - 大學의 財政支援策 및 造成 方案
 - 大學의 教育課程 및 教授方法의 研究 開發과 普及
 - 大學의 評價
 - 大學 敎·職員의 研修
 - 文教部長官이 委託하는 事業의 遂行
 - 기타 大學 相互間의 協同에 관한 業務의 施行
- 이와 같은 目的과 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기구로는 總會와 理事會를 비롯하여 事務處의 職

〈표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 機構



제와 각종諮問 및 專門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다.

이 機關이 단순한 管理的 執行機關이 아니고 大學社會와의 一體感 속에서 大學教育의 발전을 위한 갖가지 奉仕와 啓導 機能을 수행하자면 위로는 意思決定으로부터 具體的 施行事項까지 大學社會의 광범한 參與와 主導 속에서 運營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事務處 幹部職에는 회원 대학의 현직 교수 요원들이 일정 기간 常勤으로 派遣勤務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專門委員會, 評價 教授團, 共同研究陣, 國際交流活動 및 敎·職員 研修 프로그램에 약 600 여 명의 重鎮級 敎授들이 參與하고 있다.

따라서 事務處 機能의 官僚化나 獨斷을 排除하고 大學社會의 衆智와 集團思考가 民主的이고 專門的인 과정이나 機制를 통해 形成·執行되어야 하는 것은 이 協議會의 本來的 성격이고 운영 체제의 基本 方向인 것이다.

참고로 本 協議會의 현행 기구를 圖表化하면 위의 〈표 1〉과 같다.

3

이 協議會의 기능이나 사업은 그 동안 外國 類似機關의 先例를 참고하면서 각 大學의 希求나 輿望 그리고 총·학장을 비롯한 專門家 集團의 意見이 광범하게 收斂된 가운데 설정되었다. 그 내용은 大學教育協議會法을 비롯한 定款이나 각종 規程에 구체적으로 反映되어 오늘날의 正規 事業이나 프로그램으로 定着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外國의 分化된 機能과는 달리 唯一한 大學間 協議體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複合性을 지니고 있다. 금년 현재로 本 協議會가 推進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領域別 職能과 관련시켜 概括的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大學의 自律性 伸張을 위한 先導的 機能

그 동안의 規制 중심 大學行政體制나 7·30 敎育改革措置의 여파는 大學의 운영 체제를 劃一化·硬直化시켰으며 각 大學의 特性이나 自律性

을 크게 萎縮시켰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없는 바는 아니었으나 大學教育의 本來的 모습은 아니었으며 많은 問題點과 逆機能으로 작용하여 그 解消을 위한 主張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本 協議會에서는 각종 建議나 研究報告를 통해 教育의 民主化나 大學 自律의 保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는 크게 메아리쳐 소위 '6·29 宣言'이나 新憲法에서까지도 大學 自律性을 못 박는 결과로 확산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중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劃一화된 入試制度를 비롯한 학사 운영의 다양화·자율화 추진
- 學徒護國團의 改編을 통한 學生自治의 復活
- 公納金을 비롯한 大學財政 운영의 自律性 伸張 推進
- 大學 運營의 自治體制 確立을 위한 各 分野의 代案 提示
- 기타 大學間의 共通의 當面問題에 대한 研究와 自律的 協議 및 施行

2) 教育의 質 管理 및 向上을 위한 研究機能과 大學評價機能

우리나라 大學教育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大學 人口의 급격한 확충에 따른 각종 教育 條件의 惡化와 이로 인한 教育의 質의 脆弱性이라는 데는 異論이 없다. 이 문제점의 克服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政策的 접근 방법이 있겠으나 現行法이나 주어진 條件 안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대책의 추진이 本 協議會를 중심으로 시도되었으며 이는 더욱 확충 심화되고 있다.

● 먼저 우리나라 大學의 실태 분석과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政策 研究와 各 學問系列別 教育課程 및 教授方法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의 추진으로 그 동안 57건의 공동 연구에 340명의 專門家가 참여했으며 2억 3천 4백여 만 원의 研究費가 投入되었다.

● 바람직한 大學 運營을 위한 大學社會의 情報媒體로 會誌「大學教育」을 격월간으로 5,000부씩 발간하여 각 大學과 관련 기관에 配布하고 작년부터 연 6회의 뉴스 레터「大學教育資料

안내」를 발간하여 大學教育의 國際的 動向과 학술 정보를 회원 대학에 제공하고 있다.

● 모든 會員大學의 기관 운영과 教育 프로그램을 週期的으로 評價하여 大學教育의 질 관리를 위한 自律的 統制를 하고 있으며, 이 事業을 위해 매년 50여 명의 重鎮級 教授가 참여하여 書面評價와 訪問評價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文教部와 會員大學에 통보하고 있다.

● 매년 4~6회의 國內세미나와 1~2회의 國際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수준 향상을 위한 研究 發表와 協議 및 對策 등을 제안하여 그 결과를 大學內·外에 통보함으로써 大學教育의 올바른 방향과 國際的 動向을 보급해 가고 있다.

● 우리나라 大學에 設置된 338개 學科의 教育 프로그램을 主要 學科부터 開發하고 있으며 教授方法 개발 및 模範 실라버스를 각 과목별로 開發 普及하고 있다.

3) 大學間 協同 센터로서의 機能

現代 大學들이 共通의으로 안고 있는 고민은 그 역할 기대에 대한 社會的 壓力的 加重과 이를 克服하기 위한 資源이나 財政 부족에 있다. 이제 大學은 傳統的 大學과는 달리 象牙塔으로서의 權威나 榮光에만 安住할 수 없게 되고, 일종의 危機意識 속에서 부단한 自己革新과 外部로부터의 支援을 探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經營·管理의 專門的 官僚化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사회 각 部門이나 他 大學과의 互惠的 協力關係를 확충해 가는 것이 現代 大學의 한 특징이며, 또 이는 大學의 새로운 發展 模型이기도 하다. 이는 相互依存度가 높아가는 產業化 社會 속에서 資源의 效率의 活用이나 大學教育의 機能 擴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公認되고 있다.

짧은 大學史 속에서 畧의 成長만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存在 形式도 이와 같은 변화 추세나 教育의 質의 追求라는 당면 과제를 위해 새로운 教育 및 運營體制를 갖추고 미래 사회에 대비해 가야 할 立場에 있다.

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과도한 競爭이나 외부

사회와의 斷絶을 有機的 協力과 互惠의 協同으로 승화시켜 부족한 人力과 資源의 效率性을 극대화하고 大學教育의 社會的 參與度를 높여가는 것이 당면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産·學·官의 協동이나 有關行政機關간의 지속적인 協力體制的 확립이 시급하며, 같은 지역 大學間에도 역할 분담을 위한 프로그램의 特性化와 다양한 協同關係를 시급히 형성하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大學社會와 외부와의 協力 그리고 大學 相互間的 협력이나 공동 대처를 위한 多角的인 접근은 바로 大學教育協議會가 開發 推進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그 內容을 보면,

- 大學教授招聘情報室(Faculty Recruit Center)을 설치 운영하여 教授要員 희망자의 登錄을 받아 각 회원 대학에 제공하고 海外 韓國人 學者들의 身上을 파악하여 招聘 仲裁를 하고 있다.

- 또 敎·職員 研修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간 800 명의 新任教授와 150 명 수준의 行政·管理職員들을 대상으로 職務 研修를 실시해 오고 있는 한편 회원 대학의 요청에 따라 行政·管理職 幹部를 대상으로 한 短期海外研修를 매년 실시한다.

- 그 외 다양한 분야의 大學間 協力を 정착시키고자 基礎的 研究와 아울러 大邱圈 및 全州圈을 示施地域으로 選定하여 3년간 集中的으로 支援하면서 全國 大學間的 consortium) 開發을 誘導해 가고 있다.

- 協議會內에 敎育資料室을 설치하여 大學敎育에 관한 광범한 文獻이나 資料를 確保 備置하여 열람케 하고 각 大學에 직접 필요한 자료를 複製하여 연간 30 여 종의 有益한 자료를 회원 대학에 配布함으로써 上述한 회지「大學敎育」이나 「大學敎育資料안내」와 함께 大學敎育 발전을 위한 情報과 參考 資料를 보급하고 있다.

- 美國의 亞細亞財團과 提携하여 연간 8 만 권의 新刊 圖書와 學術誌를 寄贈받아 회원 대학의 圖書館에 배포해 오고 있다.

- 그 외 會員大學의 先導的인 事例를 여타 大學에도 보급하기 위한 協議나 워크샵, 곧 敎育 行政의 電算化, 圖書館 업무의 電算化를 위한 워크샵 등을 주최한다. 또 개별 大學에서 개발

하기 어려운 시설 기준, 學科別 프로그램, 單位 敎育 경비 분석 등을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大學社會 外部와의 交涉이나 折衷 등을 통해 大學社會의 權益 伸張에 공동 대처하는 많은 활동도 裨益을 수 없는 自衛的 協力機能의 하나가 되고 있다.

4) 政府와 大學間 및 國際的인 協力·調整 機關으로서의 機能

政府가 大學 行政을 主導하게 되면 각 大學과 文敎部의 一方通行的 감독이나 의존 관계만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각 大學에 自律權이 주어지게 되고 政府의 大學에 대한 監督이나 行政이 先進國처럼 보다 차원 높은 政策的 水準으로 格上 再定立된다면 政府의 大學 政策을 一線 大學에 啓導하고 大學社會의 實情과 希求를 代辯하며 간혹 있을 수 있는 政府와 大學間的 갈등이나 마찰을 調整하는 中間機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더우기 政府의 지원·조성이 本格化되는 경우 이러한 역할은 더욱 폭 넓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발족 이후 本 協議會는 이러한 中間機關의 役割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隘路와 苦衷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壓力團體로서의 性格도 지니고 있는 모든 大學間 協議體들이 宿命的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이며 民主的 團體 交涉이나 團體 行動의 屬性이기도 하다. 그러나 制度와 運營이 모두 合理化되고 우리나라 大學敎育의 참 모습을 찾게 되는 경우 그 고충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5년 동안 協議會 理事會에서는 도합 9件的 對政府 建議書를 제출하여 거의 모두가 政策面에 반영된 바 있다.

- 文敎部長官이 委託하는 각종 事業이나 프로그램을 自律體制로 改編하여 本 協議會 正規事業으로 정착시켜 왔다.

- 특히 우리나라 大學敎育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私學 財政의 문제점 克服이나 寄宿舍 확충 및 學生獎學金制度 확충 그리고 私學法人에 대한 稅制上的 惠澤을 위해 基礎的인 研究 提案, 관계 기관과의 交涉 등을 끊임없이 수행해 오으로써 상당한 實效를 거둔 바 있다. 이제는 높은

水準의 國力 伸張이나 經濟發展을 背景으로 私學에 대한 政府 補助의 유도가 당연한 진급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協議會는 國際적으로 우리나라 大學 社會를 代表하는 窓口로서의 기능도 맡아 왔다. 국제세미나의 誘致와 參加는 물론 그 동안 300명 수준의 外國 大學 總長과 大學 關係者들의 訪問으로 國際의 協力이나 姉妹結緣 등 다양한 交流體制를 확립해 왔다. 아울러 外國의 50여 개 類似 기관과의 紐帶 形成으로 대학 관계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4

위에서 協議會 창설의 背景과 그 意味, 그리고 근 6년에 걸친 成長 過程을 概括적으로 살펴 보았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날의 硬直化된 社會風土 속에서 이러한 自律機關이 이 정도나마 成長해 온 過程 속에는 직접 責任을 지고 있는 任·職員들이 政府와 大學 사이에 끼어 끊임없는 緊張感이나 大學을 위해 무엇인가 成就시켜 가야 한다는 壓迫感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음을 吐露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 政府側에서도 이 기관의 發展을 위해 大學教育協議會法의 制定을 비롯하여 物心 兩面으로 많은 配慮를 하여준 데 힘입은 바 크다. 또 會員大學의 측면에서도 많은 一般敎·職員들의 無關心이나 간혹 있었던 이 기관의 性格에 대한 理解 不足과는 달리 수백 명에 달하는 회원 대학의 열성적인 資源 人士들이 이 기관의 育成이야말로 大學社會가 오랫동안 希求해 오던 大學의 自治나 自律을 앞당겨 실현하는 捷徑임을 主唱하면서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사업 개발에 熱誠으로 참여하여 주신 노력의 所産이라고 評價하고 싶다.

그러한 熱意나 努力들이 結集되어 지금 우리

나라는 社會 각 分野의 民主化·自律化를 위한 一大 轉換期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大學의 自律化와 관련하여 많은 大學 關係者들의 希求와 輿望이 여러 차례에 걸쳐 本 協議會를 중심으로 論議되고 綜合化되어 政府에 建議되었으며 政府側에서도 이를 積極적으로 受容하여 이미 각 大學의 ‘自律化 推進 指針’으로 公表된 바 있다.

앞으로 이 協議會의 機能이나 役割이 더욱 증대되어야 할 이 중요한 轉換點에 서서 안으로는 우리 任·職員들의 謙虛한 自體 省察과 함께 그동안의 功過나 試行錯誤 등에 대한 政府와 會員 大學 그리고 外部 社會로부터의 忌憚 없는 忠告와 批判은 보다 바람직한 發展이나 이 기관의 自己革新을 위해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協議會는 지난 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단계 發展計劃을 마련하여 보다 成熟한 운영 체제를 갖추어 會員大學의 바람직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해 가는 데 더욱 充實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00년을 전후하여 國際的 水準의 教育體制를 갖추어야 할 우리나라 大學의 미래를 眺望하면서 회원 대학 발전을 위해 奉仕하며 個別大學들의 입장이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없는 公同의 課題나 問題들을 찾아 相互協力으로 解決해 가면서 명실공히 政府와 大學의 架橋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創立 初期로부터 속세로 남아 있는 附設 大學教育研究所의 출범을 위한 人力과 財政 규모의 漸次的 擴充 등 운영 여건의 개선도 불가피하다.

끝으로 創設 初期의 稚拙을 일깨워 주시고 걸음마를 訓練해 주신 여러 任員을 비롯한 각종 委員會 委員, 評價 및 研究委員, 會誌의 筆者 그리고 각 관련 기관의 여러 人士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敬意와 感謝를 드리고 앞으로도 倍前의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며 끝을 맺는다. *